



미 증시, FOMC 의사록 부담 등으로 약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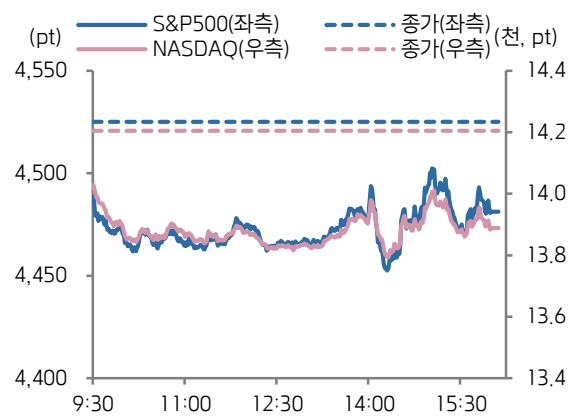
6 일 (수)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을 통해 확인된 연준의 긴축 강화 이슈로 하락. S&P500 지수는 장 초반 의사록,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공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0.8% 하락 출발.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금리 급등 부담에 성장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낙폭은 1%대로 확대. 오후 3 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, 오후 의사록 내용을 소화하며 장중 저점(-1.6%)에서 일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. 다만 나스닥(-2.2%)은 마이크로소프트(-3.7%), 테슬라(-4.2%) 등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세에 연일 급락한 반면, 다우 지수(-0.4%)는 헬스케어, 유트리티 등 방어주들의 강세로 낙폭은 제한적이었음(다우 -0.42%, S&P500 -0.97%, 나스닥 -2.22%, 러셀 2000 -1.42%)

3 월 FOMC 의사록에 의하면 연준 위원들은 매달 950 억 달러(미국 국채 600 억 달러, MBS 350 억 달러) 규모로 대차대조표 축소가 적절하다고 함. 추가적으로 “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”고 함. 3 월 FOMC 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50bp 인상을 지지했지만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단기 불확실성을 고려해 25bp 인상을 결정했다고 함. 이날 의사록 공개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2 년물 금리는 2bp 하락, 10 년물 금리는 6bp 상승(한때 +2.65% 상회), 10-2 년 장단기물 금리는 플러스 전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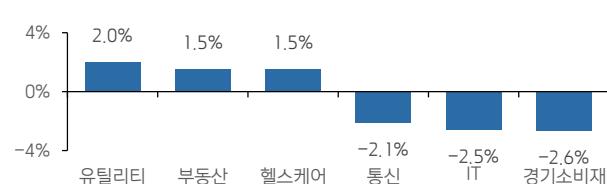
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부차 전쟁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스베르방크, 알파방크 등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들에게 추가 경제제재 단행. 이번 제재로 해당 러시아 기관들이 미국 기관 및 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됨.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푸틴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.

업종별로 유트리티(+2%), 부동산(+1.5%), 헬스케어(+1.5%) 등 방어주들이 강세, 경기소비재(-2.6%), IT(-2.5%), 통신(-2.1%) 등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들은 하락. 에너지(+0.5%)는 원유 재고 증가,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감 등으로 4~5%대 급락세를 보였지만 저가매수세가 유입에 소폭 상승. 반도체 지수(-2.3%)는 금리 부담으로 성장주들과 동반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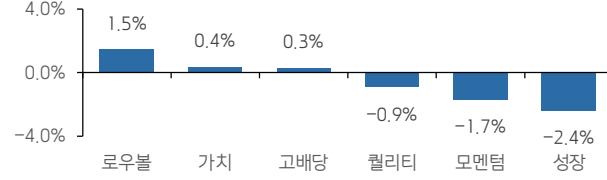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481.15	-0.97%	USD/KRW	1,218.21	+0.46%
NASDAQ	13,888.82	-2.22%	달러 지수	99.65	+0.18%
다우	34,496.51	-0.42%	EUR/USD	1.09	+0%
VIX	22.10	+5.09%	USD/CNH	6.36	+0.02%
러셀 2000	2,016.94	-1.42%	USD/JPY	123.81	+0.01%
필라. 반도체	3,193.96	-2.32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562.62	-3.34%	국고채 3년	2.920	+3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102	+2.7bp
Eurostoxx50	3,824.69	-2.38%	미국 국채 2년	2.471	-4.3bp
MSCI 전세계 지수	711.83	-0.97%	미국 국채 10년	2.598	+5.1bp
MSCI DM 지수	3,049.39	-1.04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156.75	-0.42%	WTI	96.23	-5.62%
MSCI 한국 ETF	69.99	-1.23%	금	1923.1	-0.23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 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23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31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72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218.4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연준의 긴축 가속화 부담에 따른 국내 증시에서의 위험회피심리 확산 가능성
2. 미국 대형 테크 및 성장주 주가 조정이 국내 관련 주들에게 미치는 영향
3.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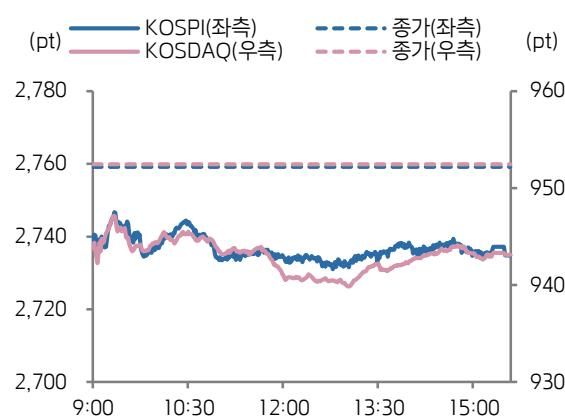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 5 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 일정부분 예고 했듯이, 3 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은 양적긴축이 이전 시기(2017~2019년)에 비해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. 과거 양적긴축 시기에는 100 억달러부터 시작해 분기별로 500 억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나, 금번 양적긴축에서는 최대 월 950 억달러(국채 600 억, MBS 350 억)까지 그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보임. 또한 대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지적하며 50bp 금리인상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미루어보아, 연준 내에서도 다수의견이된 50bp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(현재 연방기금금리선물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5 월 50bp 금리인상 확률도 77%대)

브레이너드 부의장 발언과 의사록 공개 이후 10 년물과 2 년물의 금리차가 (+) 영역에 재차 진입하면서 장단기금리차 역전 논란은 다소 진정될 전망. 이제는 연준의 긴축 가속화 이슈를 시장이 어느 정도로 그 충격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있는 상황. 다만, 연준 내에서도 긴축 정책에 따른 경기 충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또 시장 역시 1 분기 중 긴축 발작의 충격을 반영해왔던 만큼, 연준 긴축이 미치는 가격 조정의 압력은 1 분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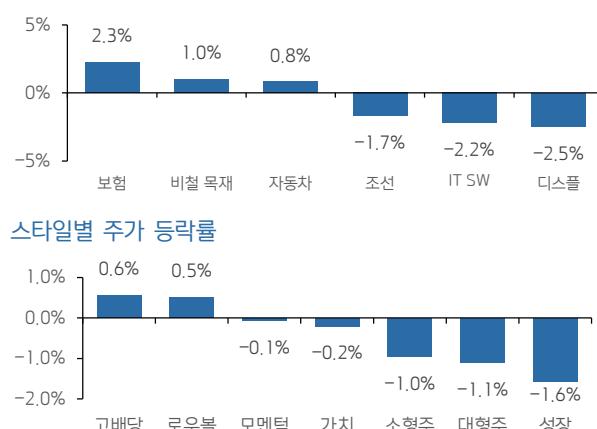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도 연준의 긴축 부담에 따른 미국, 유럽 등 주요국 증시 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일 전망. 미국 증시에서 애플(-1.9%), 아마존(-3.2%), 테슬라(-4.2%) 등 대형 빅테크,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성장주, 관련 밸류체인 주들에게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. 다만, 금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1 분기 실적(영업이익 컨센서스 13.0 조원대)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일 경우,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비워 나갔던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증시의 반등도 가능하다고 판단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